

‘전주국제영화제’ 선정작 발표

한국 단편경쟁 극영화 19편 등 25편 · 지역공모 부문 5편 총 30편 선정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 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작품 30편이 선정됐다.

16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올해 출품된 1141편 가운데 극영화 19편, 다큐멘터리 1편, 실험영화 1편, 애니메이션 4편 등 총 25편이 선정됐다.

심사에는 강진아 배우, 김예솔비 영화평론가, 남선우 씨네21 기자,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너에게 가는 길’ 변규리 감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정순’ 정지혜 감독,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문석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1년이 지난 시간이 느껴지듯 출품작들에서도 다음을 예상하는 생명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가정과 사회 안팎의 돌봄을 고민하는 영화가 대세를 이뤘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질문하거나 보호 종료 청소년,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뚜렷한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을 앞세운 작품이 많았고, 심사위원들은 그 시선의 책임감과 섬세함을 동반한 사례들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 면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유튜브 브릭 브이로그 포맷의 등장이다. 그 재기발랄함에 경도되기보다 형식과 내용이 맞아 들어 가면서 일격을 가하는 영화에 손을 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며 “애니메이션 작품의 주제도 아동용부터 B까지 다양했다. 시의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에 주소를 두었거나 전북지역 학교의 재학생인 감독, 제작자의 작품, 혹은 전북지역에서 50% 이상 로케이션 촬영을 한 작품이면 지원 가능한 지역공모 부문에는 지난해 보다 10편 증가한 47편이 접수됐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 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작품 30편이 선정됐다. 올해 출품된 1141편 가운데 극영화 19편, 다큐멘터리 1편, 실험영화 1편, 애니메이션 4편 등 총 25편이 선정됐다.

선정작은 총 5편으로, 오재욱 감독의 ‘거품’, 김종진 감독의 ‘별을헤다’, 이소현 감독의 ‘비트코인 하우스’, 이재경 감독의 ‘이곳 너머’, 김은성 감독의 ‘COMPUTER’다. 이중 ‘COMPUTER’는 한국단편경쟁, 나머지 4편은

코리아시네마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지역공모 심사에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공모 선정작 ‘마음에 들다’ 강지이 감독, 김현철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문석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뉴스

주크박스 뮤지컬 ‘썬니텐’ 군산 온다

군산예술의전당서 25일 1990년~2000년대 히트곡 총집합

싱그러운 3월 봄바람처럼 흥겨운 주크박스 뮤지컬 ‘썬니텐’이 오는 25일 오후 3시와 7시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뮤지컬 ‘썬니텐’은 사랑에 상처받은 여주인공과 인생역전을 노리는 남주인공의 알콩달콩 연애스토리로 거기에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뮤지컬이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 터보의 ‘나 어릴적 꿈’ 등 당대 히트곡들의 총집합된 공연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귀에 익은 노래들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이현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올해는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 군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다채롭고 즐거운 작품들로 관객들의 마스크 속 숨겨졌던 미소를 찾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뮤지컬 썬니텐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사전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쇼 뮤지컬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전주를 찾는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24~26일 송일국 · 이종혁 · 정영주 등 초호화 캐스팅

쇼 뮤지컬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전주를 찾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새봄을 맞아 24~26일 모악당에서 첫 번째 대형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80년 뉴욕 윈터가든 극장 초연 이후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에서 5000회 이상 장기 공연을 이어가며, 토니 어워드 9개 부문 수상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한국 최초 정식 라이선스 뮤지컬로 시작해, 26년이 흐른 지금도 관객들의 지속적인 사랑 속에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등 역대 42번가를 빛낸 배우들이 출몰풍하고, 신예스타들도 가세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기업 들레,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진행

지난 2019년부터 정읍시민을 비롯한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인문학 토크 콘서트농담(이하 농담)’이 오는 30일 19시 개화(開花)로 정읍 연지아트홀에 다시 찾아온다.

농담은 정읍형 문화도시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들레(이하 (사)들레)가 운영해 왔으며 시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도시 정읍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기획된 인

문학 토크 콘서트이다. 농담은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소리꾼 오정해가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당일 콘서트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비밀 게스트와의 토크와 공연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공감을 더욱 유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계절별 치유 인문학 강연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3월부터 11월까지 ‘마음을 채우는 풀림의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음을 채우는 풀림의 인문학’은 일상생활

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지역명사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펼치는 계절별 치유 인문학 강연이다.

강연 테마는 △봄, 피어나는 인문학 소망 △

여름,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치유여행 △가을, 예술로 물드는 시간으로, 3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연은 정동철 시인의 ‘설화와 근대가 공존하는 공간, 모릉지’로, 회관 누리집(<https://lib.je.go.kr/jc>)에서 접수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